

지역 매아리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노인재능나눔사업 참여자 모집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지회장 김봉철)는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시행하는 노인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500명을 모집한다.

노인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전문지식과 사회적 경륜 등을 활용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노후 성취감 향상과 지역 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노인권익증진 활동이다.

노인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안 전예방, 노인상담(우울증·치매), 기타활동(노인사기예방·건강증진) 등으로 진행되며 월 10시간 참여하면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 실비를 지급받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063-584-3728에 오는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선발 절차를 거쳐 사업참여자로 확정된다.

/부안=이옥수기자

문화유산 가치 극대화 총력

정읍시, 문화재 활용사업 적극 추진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정읍시가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먼저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문화재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것으로 전국 곳곳의 문화재를 활용한 탐방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자들에게 지역문화 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물론 문화유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련해 시는 올해도 무성서원의 '최치원의 사상과 현거루의 풍류를 찾아서', 김명관 고택의 '김명관 고택의 건축 이야기', 황토현 전적의 '채야

새야 전봉준 만나러 가자소' 등 3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별개로 천상의 소리로 평 가받고 있는 정읍의 수제천의 가치 극대화에도 나선다.

관련해 올해 초·중·고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연주단을 창단하고 수제천 보존 전승과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과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가시화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1월 29일 무성서원을 비롯한 조선시대 서원 9개소(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돈암서원)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추진한다.

피향정 보수장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에 15억원, 도지정문화재와 전 통사찰 18개소에 14억원을 투입해 문화재 원형 유지를 꾀하고 환경도 정비한다.

특히 문화재관리단을 상시 운영하여 문화재 훼손 예방 등을 꾀하는 한편 1문화재 1지킴이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더불어 지난 달 1일 자(字)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예고된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인근의 고사부리성 등과 연계한 역사자원의 관광 자원화 추진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일·가정 양립정책 적극 추진 고창군,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획득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고창군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와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육아휴직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인정받아 이번 심사에서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 최종심사 단계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을 취득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 사회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고창군이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하며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며 "앞으로도 보다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는 태양광식 전기 울타리와 철제 울타리 등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의 6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안군의회 임사회 20일 개최

부안군의회 제289회 임사회가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업무보고 및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등 1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289회 임사회 제차 본회의에서 2017 회계연도 결산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3월중에 부안군에 대한 결산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의회는 이번 임사회 기간 동안 부안군이 올 한해 추진할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각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꼼꼼히 점검,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부안=이옥수기자

시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앞장

정읍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복권기금 등 4억7800여만원 투입

정읍시가 올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에 총력을 쏟는다.

시는 불우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게 생활환경 조성 일환으로 모두 498가구에 4억7800여만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농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 점검과 보수, 국가 유공자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주요 내용이다.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경

제적 여건 등으로 제때 보수를 못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매년 국비(복권기금) 60%를 지원받아 추진해오고 있는데 올해도 국비(복권기금)와 시비 모두 2억9600만원을 들여 74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붕 개량과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창호시설 개선 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과 관련해 시는 "공개입찰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당초 목표보다 더 많은 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의 노후 불량 주택을 점검하고 개·보수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시는 이밖에도 400세대의 소외계층의 주거시설 안전점검과 보수에는 9200만원, 국가 15세대의 국가 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에 5550만원, 9세대의 농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에 3420만원을 투입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의회 임사회 28일까지

고창군의회는 제254회 임사회를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

이번 임사회에서는 2018년도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나갈 주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2017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해 5명의 결산감사위원을 선임함으로써 향후 결산감사에 신중을 기할 계획이다.

최인규 의장은 "올 한해도 군민과 군정을 위해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전기 자동차 10대 민간보급 추진... 1인당 최대 1800만원 보조

정읍시가 전기 자동차 구입 시 1인당 최대 1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비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800만원(10대)의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 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오는 3월 8일까지 구매하고자 하는 차종을 선택하여 해당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2017년도에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25대와 읍·면·동 복지 허브와 23대를 포함하여 총 48대 1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일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시는 신청자가 보급 계획 수량 초과 시 3월 15일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

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 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k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별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정읍시 환경과 ☎063.539-570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3월 19일까지 신청서 · 설치 견적서 제출

정읍시는 야생 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생 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야생 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를 입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태양광식 전기 울타리와 철제 울타리 등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의 6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설치비의 40%를 자부담 할 능력이 있고 5년 이상 연장이 가능한 농가이다.

시는 최근 야생 동물에 의한 급식한

피해 발생지역과 고질적 피해지역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3월 19일까지 해당 농지의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설치 견적서 등을 3월 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현지 확인 후 사업의 적정성과 우선 지원 대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31개 농가에 4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벚꽃제와 고라니 등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농가들에 도움을 주고 야생동물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 | 750ml 1ea/12%

GIFT SET 4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 375ml 5ea/13%

GIFT SET 6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